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아카이브즈 구축 및 관리

함한희

전북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I. 서론

최근 들어 특정 사회의 무형문화유산이 지닌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무형 문화유산을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이러한 움직임은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보호하려는 문화 운동으로 발전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발표됨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는 각국이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화자원을 보호하는 방법이 되었다.

문화유산 보호 방법 가운데 상세목록작성 작업은 무형문화유산 공동체 일원이 자신들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13조 8(4)).¹ 유네

1. 'Inventory'의 한국어 번역은 '상세목록'이라고 한다. 'Inventory'라는 개념에는 'complete list' (완벽한 목록)이나 'detailed list' (자세한 목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list'를 '목록'으로 번역하는 관행과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한다. (함한희 편, 『무형문화유산의 이해-전승·보전 그리고 인벤토리』, 2012. 도서출판 흐름, pp.33-36)

스코에 따르면 무형문화유산의 상세목록작성 과정을 통해 전승자와 전승공동체의 자존감(self-respect)이 강화되고 인간의 창조성도 향상된다. 협약은 국가가 앞장서서 자국 영토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상세목록을 만들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갱신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12조). 상세목록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일은 지속적인 작업으로 결코 최종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협약은 상세목록작성 작업을 수행할 때 당사국 나름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축적인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11~15조).

II. 한국의 보호 정책

1960년대부터 한국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문화유산을 보호 및 보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² 국보(國寶)나 보물급 유·무형 문화재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가 시행되었고, 이러한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아 전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 분야에서 유네스코가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는 이미 보호정책과 보호법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네스코가 뒤늦게 시작한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내용이 오히려 한국정부를 당황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 한국정부는 고유의 문화유산 보호·보존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지만 현재에 이르러선 기존 시스템을 수정해야 하는 입장에 서있다. 2003년 유네스코 협약과 운영지침의 발표로 인해 이러한 혼란에 빠진 국가는 비단 한국만은 아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한국의 현행 제도와 유네스코의 새로운 제도 사이에는 상이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두 제도 사이의 상이점과 각각의 특징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국은 근대화와 산업화로 인해 문화유산이 소멸과 변화의 위협에 봉착하자, 문화유산을 지정·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했다. 법 제정의 목표는 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유지·보존하는 데 있었다. 법에 따라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유·무형 유산을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보호해 왔다. 주요

2_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지정기준은 독창성, 우수성 그리고 고급성이다. 이러한 한국의 문화재 보호 접근법은 몇 가지 측면에서 2003년 유네스코 협약의 접근법과 직접적으로 상충한다. 한국의 보호기준은 해당 문화유산의 독창성과 우수성, 우월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협약은 그러한 기준보다는 해당 문화유산이 특정 공동체, 집단, 개인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연행되어 온 것을 중시한다. 그 결과, 협약에 따르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하는 유형문화유산과는 달리 무형문화유산은 '살아있는 문화'인가의 여부를 가늠하는 것이 중시된다. 두 번째로, 협약은 공동체 및 집단 내 무형문화유산의 장기적 생명력(2.3조)과 공동체와 집단, 개인의 지속유지 가능성을 중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와 집단 내에서 세대 간 전승되는 '살아있는' 문화야말로 무형문화유산 등재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협약은 결과물(products) 보다는 연행과 과정(processes)에 주목하게 된다. 이를 통해 협약은 공동체와 집단 내에서 자신들이 간직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유형문화유산에 비해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정과 보호와 관련해서 늘 복잡한 문제를 야기해 왔다. 한국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라고 정의한다.³ 무형문화유산은 예술과 기술을 의미하지만 실제로 보호 및 관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러한 예술과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된다. 한국에서는 이들을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라고 부른다.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들의 시연과 활동을 통해서 무형문화재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이란 보유자의 예술과 기술의 보존 및 계승을 의미한다.⁴ 현재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은 예술적 재능과 기술, 두 개의 항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예술적 재능으로 음악, 무용 연극, 놀이/의식, 무예 등이 있고 기술에는 공예 및 요리법이 포함된다.⁵

정부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면서 하향식 접근법이 일정한 성과를 이룩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⁶ 그러나 사

3. '문화재보호법(2007년 4월 기준) 제2조 무형문화유산 '정의' 조항에서 발췌함.

4.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2004년 '아름다운 만남'을 발행했다.

5. '문화재청은 2010년 기준으로 116 종목의 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음악 종목 17건(세부종목 23건), 무용 종목 9건, 연극 종목 14건, 놀이와 의식 종목 24건(세부종목 27건), 공예기술 종목 49건, 음식 종목 2건(세부종목 4건), 무예 종목 1건이 이에 포함된다.

6. '2009년 유네스코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한국 설립을 승인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한국정부의 활발한 활동을 인정했다. 같은 해 11월, 한국과 유네스코 간에 센터 설립을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에 발맞춰 문화재청은 '국립무형유산원'의 개원을 앞두고 있다.

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무형문화유산의 지정과 보호제도, 그리고 목표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고,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한국에서는 최근 무형문화유산 정책 관련해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문화재청이 지원해서 실시한 ‘무형문화유산 온라인 시범 조사 (이하 시범조사)’이다. 이는 국가상세목록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⁷ 필자 역시 201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이 조사활동에 책임연구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 조사연구를 토대로 문화유산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새로운 방식은 결국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보 수집의 방법론적 전환과 최첨단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기록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III. 상향식 무형문화유산 조사

상향식 접근법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조사는 해당 종목의 수집과 관련해서 문화유산과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구한다. 기존의 하향식 접근법과는 달리 협약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상세목록작성 작업에서 공동체와 집단, 개인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이처럼 ‘자발적이고 사전 정보에 기초한 공동체의 동의’가 협약 정신의 달성을 위한 필수 요건 가운데 하나이다.

상향식 접근법은 하향식 접근법 등 기존의 접근법과 비교하면 시간이 보다 오래 걸리고 효율성이 떨어질지도 모른다. 이전에는 전문가와 관료들이 문화유산 보호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은 단지 정보 제공자라는 위치에 머물렀다. 하향식 접근과는 달리 상향식 접근에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전문가와 연구기관, 지방정부 관리와 NGO의 도움을 받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라는 소임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향식 접근법이 지니는 장점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7_ 새로운 정책에 따른 상세목록작성의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발표문을 참고한다. (박원모, 2010, ‘온라인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상세목록작성 방법,’ 중앙아시아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을 위한 전문가 회의, 아태무형유산 센터, 82~85쪽; 함한희, 2010, ‘집단지성과 온라인네트워크를 통한 문화유산의 기록에 대한 새로운 방법,’ 제 1회 아태무형문화유산 정책포럼 발표집, 문화재청, 60~66쪽)

- (1) 알려지지 않은 무형문화유산의 홍보가 가능하다.
- (2) 공동체 구성원들이 고유의 무형문화유산 상세목록을 작성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특히,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주민과 소수민족이 보호 대책 마련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경시되던 문화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다.
- (3)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기존 관념을 뛰어넘어 다양한 문화를 접함으로써 고정된 개념을 확장시킬 수 있게 한다.
- (4) 무형문화유산이 소멸되기 전에 더 나은 보호조치 방안을 제시한다.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기 위해 상향식 접근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인터넷 활용이다. 개방적인 시스템 안에서 소통의 여러 시설과 혁신적인 컴퓨터 공학을 이용해서 무형문화유산의 목록작성을 달성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 사항은 다음 장에서 다룬다.

IV. 집단지성을 이용한 무형문화유산 조사

무형문화유산 목록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과 맞먹을 정도로 조사방법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한다. 조사원 확대 및 새로운 정보 수집 기술의 개발을 위해서 새로운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조사원을 확대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상향식 접근법을 채택하면, 무형문화유산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종전의 국가목록 작성 시에는 전문연구자와 관련 공무원이 주도했으나 이 방법에서는 보다 공개적인 전략을 사용해서 많은 관계자들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시범조사팀은 웹2.0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고안해 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수많은 조사원들과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라면 자유롭게 해당 무형문화유산 종목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입력된 정보는 실시간으로 확인되므로 온라인을 통해 즉시 공유된다. 온라인 조사 시스템의 핵심은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집단지성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가 위키피디아이다. 웹2.0 플랫폼을 토대로 누구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입력하고 검토하며 검

증함으로써 자신의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늘날 인터넷과 정보공학의 결합으로 이러한 혁신적인 시스템이 가능해졌다.

V.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문화운동 전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기본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온라인 네트워크가 수립되어야 하며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원칙과 무형문화유산의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업을 촉진시킨다. 조사자와 공무원, NGO,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는 해당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그 결과 서로의 지식과 정보, 연행기술 등을 공유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상세목록을 작성하면 기존의 방법과 비교해 체계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초기 단계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과도기 단계에서는 정보의 신뢰성, 인권침해, 저작권 분쟁 등 주요한 쟁점이 부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때 집단지성을 이용한 온라인 시스템에 기반을 둔 목록작성 작업은 결국 문화운동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활동 덕분에 산간벽지의 공동체와 집단, 개인이 간직한 소멸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도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보호 및 보전의 대상이 될 것이다.

VI. 이치피디아(ICHPEDIA)

1. 국가 무형문화유산 상세목록작성을 위한 기본 정보 수집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력 하에 우리 팀은 시범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협약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는 상세목록과 분류체계 및 보호 환경을 위한 새로운 형식을 생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비록 초기 단계이지만 이 작업은 온라인 조사활동을 통해서 무형문화유산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조사 시스템의 기본형식과 정보수집의 목표

및 방법론을 간략히 소개하고 향후 전개 방향 및 전망을 덧붙이도록 하겠다.

인쇄본형 항목	이커네디아 항목
1. Identification of the element	자료입력자
1.1. Name of the element, as used by community or group concerned:	같은자
1.2. Short, maximally informative title (including indication of domain(s)):	종류
1.3. Community(ies) concerned:	관련된 다른 이름
1.4. Physical location(s) of element:	전송지역
1.5. Short description:	분류체계
2. Characteristics of the element	정의 및 내용
2.1. Associated tangible elements:	- 정의 또는 간략기술
2.2. Associated intangible elements:	- 전송주체
2.3. Language(s), register(s), speech level(s) involved:	- 내용
2.4. Perceived origin:	- 보호강제과 보호 전송활동
3. Persons and institutions involved with the element	자료출처
3.1. Practitioner(s)/performer(s): name(s), age, gender, social status, and/or professional category, etc:	지원유형
3.2. Other participants (e.g., holders/customers):	연수생과
3.3. Customary practices governing access to the element or to aspects of it:	관련단체
3.3. Modes of transmission:	첨부자료
3.4. Concerned organisations (NGOs and others):	
4. State of the element: viability	
4.1. Threats to the enactment:	
4.2. Threats to the transmission:	
4.3. Availability of associated tangible elements and resources:	
4.4. Viability of associated tangible and intangible elements:	
4.5. Safeguarding measures in place:	
5. Data gathering and inventorying	
5.1. Consent from and involvement of the community/group in data gathering and inventorying:	
5.2. Restrictions, if any, on use of inventoried data:	
5.3. Inventory personnel: name and status or affiliation:	
5.4. Date and place of data gathering:	
5.5. Date of entering data into an inventory:	
5.6. The inventory entry compiled by:	
6. References to literature, ethnography, audiovisual materials, archives	

표1.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상세목록과 이커네디아 형식 비교



그림 1. 이커네디아의 구성

첫째, 연구팀은 무형문화유산 정보를 디지털 사전형태로 만든 이치피디아를 제작했다. 이치피디아 팀이 만든 상세목록의 형식은 유네스코 대표목록 작성에 필요한 기본 형식을 따랐다. 이치피디아 항목 구성을 살펴보면, 무형문화유산 각 종목의 제목, 위치, 분류, 그리고 내용(전승주체, 집단, 공동체 명, 보전정책, 그리고 전승활동), 참고자료, 지정형태, 연구성과, 관련 단체 그리고 보충자료 등이다. 이는 유네스코가 제시한 상세목록 형식을 수용하면서도 한국의 기존 무형문화유산 정보 수집 방식도 반영한 것이다.

위의 표 1은 유네스코와 이치피디아의 항목을 비교해 본 도표이다.⁸ 이치피디아의 첫 번째 특징은 수집한 정보를 중요한 사항의 누락없이 신속하고도 간편한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거나 그러한 기록이 필요할 때는 ‘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자세한 기록이 담긴 아카이브는 상세목록작성 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다음의 그림과 표로 이치피디아의 구조를 다시 설명해 보고자 한다. 그림 1은 이치피디아의 전반적인 구조와 특징적인 설계를 보여주고 있다(표1과 그림1 참조). 그림 2와 3은 각각 이치피디아에서 제공하는 한국과 다른 나라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이다(그림 2와 3 참조). 그림 4는 무형문화유산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시범 조사팀은 마을을 방문하여 무형문화유산 전승자와 인터뷰를 하고 이때 영상 카메라와 기록매체를 활용한다. 전승자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과 지식을 설명하거나 문화유산을 직접 시연한다. 조사자들은 인터뷰와 시연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기록한다. 무형문화유산 기록에 참여하는 현지조사자와 연구자들은 전문가와 훈련담당자의 지도 아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그림 4 참조). 시범 조사팀은 또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조사방법을 개발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조사자들은 어느 곳을 가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카메라나 보이스레코더와 같은 전문기기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일상적인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멀티미디어로 손쉽게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새로운 기록방법으로 주목할 만하다(그림 5, 5-1, 5-2 참조).

8_ '표1은 김용구(당시 문화재청 무형문화유산 온라인조사사업 담당관)의 비교분석임을 밝힌다.



그림 2. 이치피디아 무형문화유산 상세목록 중 대장간



그림 3. 이치피디아에서 제공하는 몽골 전통민속춤 비엘기(Biyelgee) 자료



그림 4. 정보 제공원과의 인터뷰

ichpedia 유비쿼터스 디지털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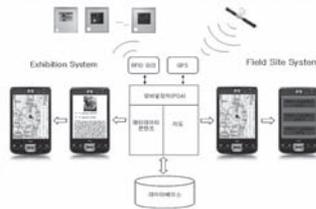


그림 5. 이치피디아의 스마트폰 표시화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도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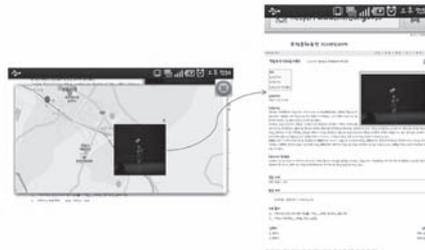


그림 5-1.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도검색



그림 5-2. 이치피디아를 이용한 지도검색

그림 6은 이치피디아와 아카이브즈로 구성된 시범 조사팀이 개발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 두 데이터베이스는 통합적이면서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된다. 아카이브즈는 어떠한 제약 없이, 수집된 모든 유형의 무형문화유산 정보를 보전할 수 있다. 아카이브즈가 정보를 축적하고 보관하는 용도라면 이치피디아는 무형문화유산의 자료검색에 유용한 장이다. 아카이브즈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관된 정보를 영구보존하며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는 것이다. 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의 세 가지 주요 기능은 정보의 디지털화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동시에 달성된다. 이는 무형문화유산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조사자/연구자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입력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었다. 일반인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이 시스템은 원활한 접속을 위해 웹2.0 플랫폼으로 구축되었으며 형식의 특성상 고도의 통합성을 갖추고 있다. 축적된 무형문화유산 자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아카이브즈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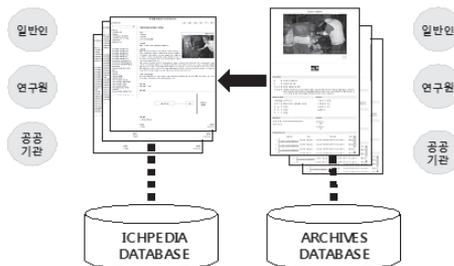


그림 6. 데이터베이스 구조 : 이치피디아와 아카이브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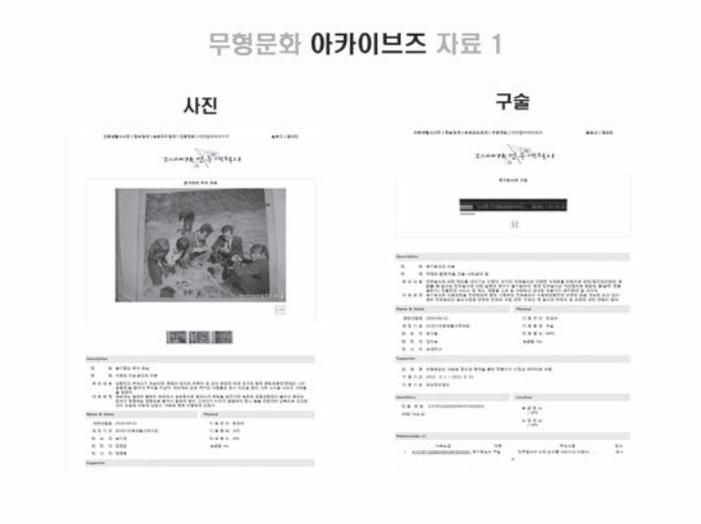


그림 6-1. 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즈 그림과 구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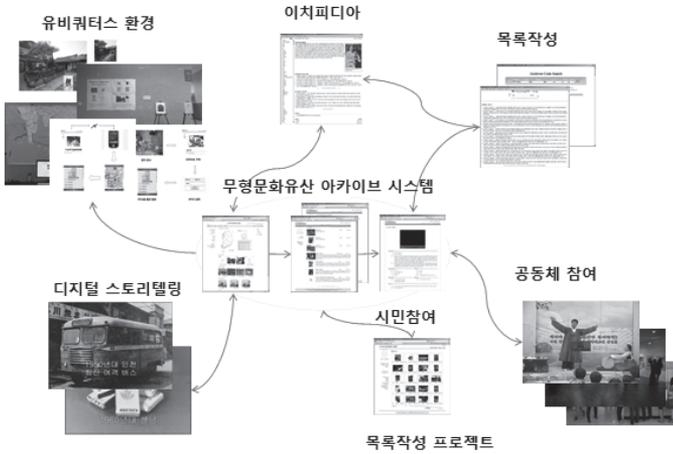


그림 7. 무형문화유산 통합아카이브즈 다양한 활용 방안

2. 공동체의 활발한 참여 권장

이치피디아는 개방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여기에 접속하여 자유롭게 정보를 올릴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입력할 뿐만 아니라 보호계획이나 정책제안에 참여하는 문화운동에 동참할 수도 있다.

3. 다른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을 집대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일반 대중,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정부와 시민 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활발히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가장 가능성 높은 방법으로는 온라인을 이용한 네트워크 형성을 들 수 있다. 대면접촉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이 있고 여러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는 데 불필요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 온라인을 토대로 한 네트워크는 시공간의 장벽뿐만 아니라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경계와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반면 온라인 네트워크는 기술적인 표준화를 요구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시범 조사팀은 아카이브즈와 이치피디아를 국제표준에 따라 설치했다. 세계적으로 준용되는 데이터 국제표준은 더블린코어(Dublin Core) 방식, MARC 등 여러 형식들이 개발되어 왔다. 이 가운데 이치피디아에서는 더블린코어 방식을 채택하여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국뿐 아니라 해외기관들과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제안한다. 웹기반 네트워크는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실현 여부는 IT 능력과 정보 표준화에 대한 의지에 달려있다고 본다.